

장흥군 “스마트한 농업인 육성한다”



장흥군은 정보화시대에 농업인들의 스마트폰 등 IT 기기이용 능력을

스마트폰 활용 등 4개 과정 단계별 맞춤교육 과정 당 20명씩 정보화 교육 진행...만족도 ↑

이번 교육은 농업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참여의욕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 기술 SNS 및 블로그 활용,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4개 과정이다. 이달 22일부터 과정 당 20명씩 5일 동안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해 보는 등 정보

화 교육에 임하고 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참석자 반응이 좋아서 주기적이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 정보화 능력을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는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061-860-0555)으로 하면 된다. 장흥=김홍필 기자



진도군, 학교 급식 7억원 예산 지원

유기농 쌀 등 지역 생산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구입 우선 사용

진도군이 올해 학교급식에 7억원을 투입,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18년 학교 급식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고 우수 농산물 제품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도군에서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건강한 먹거리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물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생산 농업인의 소득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 모두 만족하고 있다.

지원되는 급식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구입과 국내산 무항생제 축산물 구입 등 44개 품목 구입에 우선 사용된다. 진도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육시설,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전체를 순수 군비로 지원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급식비 지급으로 47개 초·중·고등학교 3,406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질 좋은 학교 급식으로 청소년들이 급식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정남진장흥농협, 전남도 수출상 수상

지역 특산물 건표고버섯 홍콩·일본 등 수출 공로 인정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이 지난 2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13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식에서 '전라남도 수출상'을 수상했다. 장흥군 특산물인 건표고버섯을 홍콩, 일본 등지로 수출해온 정남진장흥농협이 100만달러를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은 상을 받았다. 정남진장흥농협은 2017년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은 장흥표고버섯을 주력 상품으로

연간 200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로는 2016년 70만불에 이어 지난해 100만불을 달성하는 등 매년 40%의 수출 성장을 하고 있다. 강경일 조합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고버섯 수출농협으로 성장한 것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가능성이 있는 지역특산물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해외시장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남진장흥농협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2017년 농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날 시상상을 받은 전남도내 수출기업 7업체 중 농협으로는 정남진장흥농협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김홍필 기자

완도군,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전국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완도군은 23일 부산 신라대학교에서 개최된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지방정부 정책대상 시상식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 중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될 만한 정책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매년 10월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사례를 공모하여 정책 형성단계(30%), 정책 집행단계(35%), 정책 성과(35%) 등 3개 분야 8개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사례는 시상식과 함께 열린 (사)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리에서 사례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전파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어촌 개발 계획을 세워 미래 지역발전 견인하는 '완도희망PD제도'를 우수 정책사례로 제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완도희망PD제도' 정책은 지역개발 사업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하면서 농어촌지역 간 연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단계별·전략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민 맞춤형 정책이다. 군은 지난해 2월 완도희망PD를 구성해 워크숍과 현장 면담활동,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총 59건의 지역개발 미래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 낸 미래개발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정부지원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中企 육성정책 수출 증대 이어져



지난 22일 제13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식이 열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대상 수상기업인 여수 (주)에스에프시의 이정석 대표(왼쪽)와 우수상 수상기업 재원산업(주)의 김재욱 총무팀장(왼쪽 두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기업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3년 여수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주)에스에프시(대표 이정석·홍정구)가 2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제13회 전라남도 수출상 대상을 수상했다. (주)에스에프시의 대상 수상은 해외시장 개척과 지역 업체 원·부재료 구매, 신규고용 창출 등 공로가 인정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주)에스에프시는 여수국가산업단

서 계면활성제, PE-WAX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1998년 설립 후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2016년 대비 수출실적이 46%나 성장했다. 앞서 (주)에스에프시는 지난 2013년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대상으로 뽑혀 사업비·기술 지원 등을 받았다. 여수산업에서 대체연료류 등을 생산하는 재원산업(주) 대표 심재원·심성원)도 이날 수출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발전·육성자금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